

국제농업박람회 막바지 준비상황 점검

사무국 보고회 열어 성공 개최 위한 기관·단체 협조체계 강화

10월 12일부터 11일간 순천시...25국 500개 기관·기업 신청

(재)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은 '2023 국제농업박람회' 개막 27일을 앞둔 지난 15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어 성공 개최를 위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고회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도 간부공무원, 순천시와 순천만정원박람회조직위, 농산업 비즈니스 협업 기관인 전남장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과 협력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과제는 언론 홍보,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박람회 연계 도내 관광 프로그램 발굴 지원, 전남도 홍보관 운영, 농식품 구매 상담회 개최

지원, 환경친화 축산관 운영, 주요 외빈 개막식 참석 지원 등이다. 사무국은 홍보, 유치, 전시 등 분야별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농업 관련 비즈니스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바이어 유치 및 수출상담회 개최, 관람객에게 농업의 소중한 가치와 발전 가능성 홍보, 오감만족 체험이 가능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현재까지 25개국 500개(국내 350·국외 150) 기관·기업의 참가 신청을 받았다. 또 주관방송사와 홍보대사 박지현 기수를 적극 활용해 박람회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미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15개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선제국가의 친환경 유기농 기업이 참가해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위한 글로벌농업의 비전을 제시한다. 첨단 농기계를 비롯한 최신 농산업 발전 현황을 알기 쉽게 소개해 농업인이 쉽게 접하지 못한 다양한 신기술을 습득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국제농업박람회는 한국농업을 선도해온 전남농업의 감정을 통해 미래 생명농업 비전을 밝히는 무대"라며 "특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순천에서 개최하는 만큼, 도가 주도하는 박람회 준비에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국제행사 6회째를 맞은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12일부터 11일간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이라는 주제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신보 금융 소외지역 돌산읍 출장 상담

소상공인 30여명 대출 등 안내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 지난 13일 금융소외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해 여수시 돌산읍사무소에서 '2023 하반기 도담도담 토탈케어 서비스' (이하 출장 상담)를 실시했다. (사진) 이번 출장 상담은 전남신보와 농협은행 여수센터별지점, 여수시가 함께 참여했으며, 보증 및 대출상담, 서류 접수, 여수시자금 접수 등의 질

차를 한 번에 진행했다. 30여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사업 자금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결했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등 3고 여파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돌산읍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원거리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출장상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관광기업-구직자 연결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전남관광재단·전남경제진흥원

여수시 50여명 현장 직무 체험

전남관광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지난 14일 관광기업과 관광분야 근무를 희망하는 구직자 간 일자리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를 운영했다. 올 하반기 9명을 채용 예정인 여수 히든베이 호텔, 여수첼린지파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관광 분야 취업준비생 50명이 기업 현장 직무 체험, 모의 면접 등에 참여했다. <사진>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는 기업과 취업자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 시작된 전남도 일자리 정책으로 구직자가 취업요구가 있는 기업에서 현장 직무를 경험하고 인사담당자와 일대일 취업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들은 재단에서 상반기에 진행한 관광전문양성사 교육중 웰니스 전문인력과 관광기획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 수요생과 여수 관광 관련 학과 취업 준비생들이다. 이날 행사를 통해 면접을 통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턴십과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남관광재단은 올해 처음 관광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혁신프로젝트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에 도전해 사업비 7억여원을 확보해 진행중이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구인 수요가 있는 관광기업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인력을 공급

함으로써 관광일자리를 찾는 도민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양성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관광재단은 오는 22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개최하는 2023 전남 서부권 일자리 박람회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사회적경제 우수상품 추석 할인 행사

350업체 제품 온오프라인 판매

전남도가 추석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사회적경제 우수 제품 특별할인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할인행사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50개 업체가 참여해 농수축산물·가공식품, 전통주류, 생활용품 등 1000여 우수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온라인 판매는 전남사회적경제소상공인 '녹색나눔'을 비롯해 '남도장터', '우체국쇼핑몰' 등 온라인몰 3개소에서 진행된다. 전남사랑에 서포터즈 회원이면 녹색나눔몰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도 100여 개 전남 사회적경제 추석 상품 할인을 진

행한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상품을 널리 알리고 착한소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진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물가, 자연재해 등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석을 맞이했다"며 "이번 특별할인행사가 추석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할인행사 제품은 전남상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주문하거나 녹색나눔 누리집(greenanum.co.kr), 남도장터 누리집(jnmall.kr),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소방-한전MCS, 섬 취약가구 안전서비스

주택안전 진단·피해 복구 등 제공

전남도소방본부와 한전MCS(주)가 섬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한전MCS(주) 검침원들이 지난 15일 완도 생일도를 시작으로 연달까지 완도·신안 도서지역 부속섬을 방문해 안전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완도·신안 12개 섬의 부속섬 거주 1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부속섬 이장들과 협의해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방문 대상을 선정하고 종합적인 안

전관리를 진행한다. 주요 활동은 안전진단, 생활불편 해소, 생활의료,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피해복구, 5개 분야로 진행되며, 노후 전기시설 점검 정비 등 19개 세대별 맞춤형 안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토대로 향후 주민 만족도와 추진실적을 분석해 2024년에는 목포, 여수, 고흥, 보성, 해남, 진도 등으로 확대 운영한다. 흥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도서지역 등 도내 곳곳을 꼼꼼히 살피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전국체전 흥행 앞장

서포터즈 누리집 19일부터 개최식 입장권 800매 선착순 배부

전남도가 10월 13일 개막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식 입장권 800매를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누리집(https://namdo2.jeonnam.go.kr/)을 통해 19일부터 배부한다.

입장권은 선착순 400명(1인 2매)을 선정하고 우편으로 전달한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전남도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하기 위해 도입했다. 2026년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가입자 40만명을 돌파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서포터즈에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남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등 각종 도내의 축제·행사를 알렸다. 이번 입장권 배부도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의 사전 흥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강경문 전남도 고흥사랑과장은 "향우, 서포터즈 등 전남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국체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남도영화제, 국제농업박람회 등 전남에서 펼쳐지는 메가 이벤트 홍보에 더욱 주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개최식은 목포종합경기장에서 10월 13일 오후 5시 20분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성대하게 막을 올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